

마음 건강 바로 알기



집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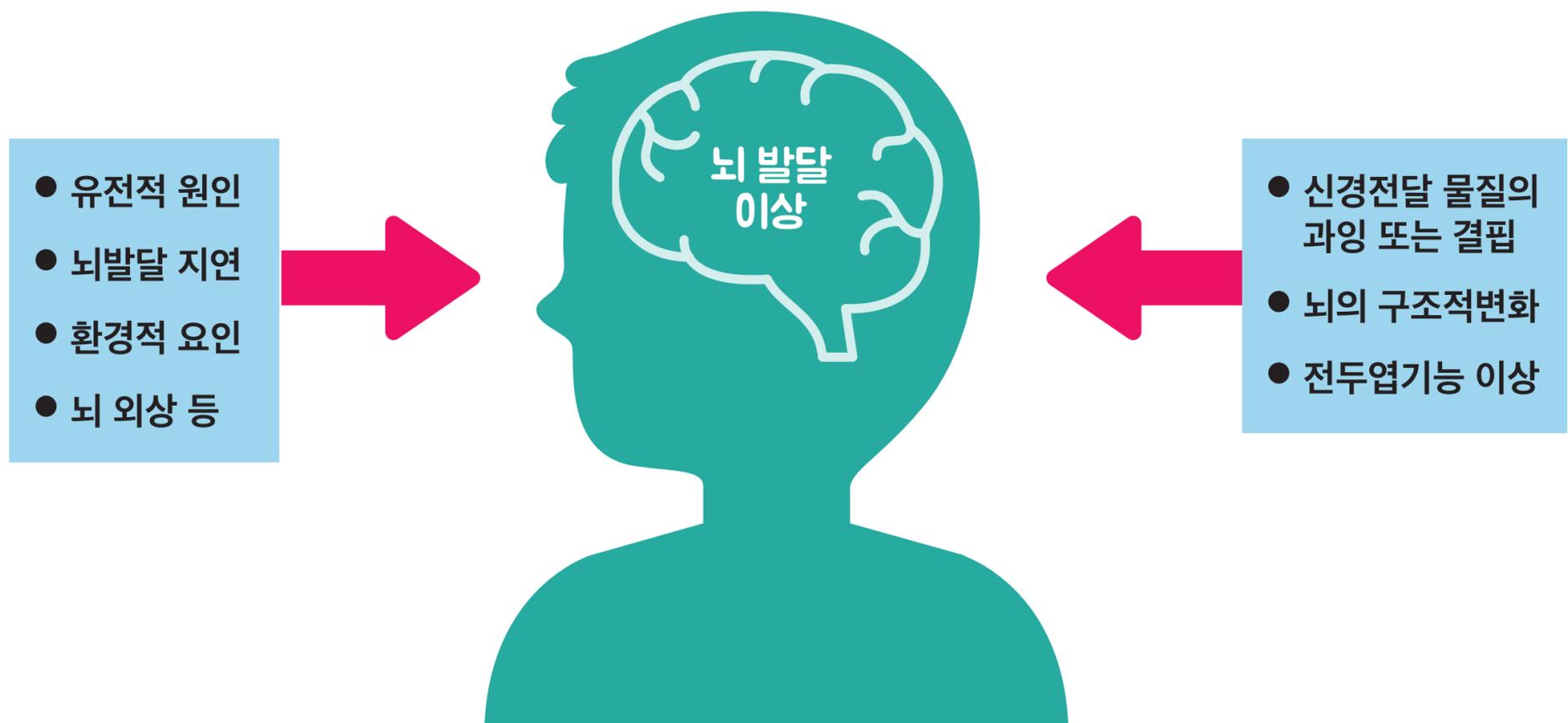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자주 하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과 주의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집중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ADHD 학생은 집중력은 괜찮지만 주의력은 낮을 수 있습니다. 게임같이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서는 몇 시간씩 집중하기도 합니다.
-  '주의력'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의력의 문제는 자기 통제 및 자율성의 부족, 과제에 대한 동기 결여, 계획 능력의 결핍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주의력이 차이가 날까요? ADHD 원인이 무엇인가요?



ADHD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모여 발생합니다. 유전과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ADHD 증상이 나타납니다. ADHD는 '뇌 발달과 기능 저하의 문제'가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법이나 학생의 나쁜 습관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나요?



전 세계적으로 **3~8%**가 **ADHD**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ADHD 치료율은 10% 이하입니다. 치료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가 치료받고 있는 것을 교사나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편견을 갖게 되어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ADHD 증상을 미리 **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 교사가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 교사가 교실에서 ADHD 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중재할 수 있을 때,
- 교사가 학생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도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학생의 주변인들이 이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때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ADHD에 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1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ADHD 아동의 70~80%에서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적 개입, 인지행동치료, 부모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의 치료를 보조로 사용하여 ADHD에 따른 이차적인 정서 및 행동 문제들을 치료합니다.



2 ADHD는 평생 치료해야 하나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ADHD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최소 50%,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35% 정도입니다. ADHD 증상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증상이 심각했을 경우, 동반 질환이 있었을 경우, 가족력이 있었을 경우라고 합니다. ADHD 증상을 치료하고 동반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ADHD가 오래 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ADHD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10명 중 6명이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보호자의 부담은 큼니다. “ADHD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잘 버티고 있다.”라는 위로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해라”라고 힘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고 합니다. ADHD 학생과 보호자를 응원해주세요.



본 카드뉴스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우리들의 마음건강 이야기” 10호입니다.